

# 기도주간 · 1일

## 11월 29일, 주일



### 케냐 나이바샤 어린이 보호소

케냐에서는 수 천명의 소년들이 거리에서 잠을 잡니다. 이 아이들은 소외 당하고, 구타 당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며, 체포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케냐 사람들은 이러한 아이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케냐인들은 이러한 아이들을 “쓰레기를 먹는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선교부 선교사 크리스틴 로우리와 케냐 나이로비의 나이바샤 어린이 보호소의 스태프는 이런 각각의 아이들의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소년들을 찾아내어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고 영망이 된 삶을 회복 시키고 있습니다.

크리스틴은 2009년 IMB와 사진 작업을 하던 중에 케냐의 거리의 소년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진 작업을 하는

내내 그녀는 거리에서 소년들을 돌보는 케냐 여성 유니스 무라게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크리스틴이 그 소년들의 생활상과 그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목격을 하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는 크리스틴을 부르셔서 케냐 나이로비의 소년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크리스틴은 나이로비로 이사하자마자 유니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그 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거나 소년들이 거리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 두 여인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유니스와 크리스틴은 재활과 재회 센터를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장소를 구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거리에 있는 친구에게 쉼터에 대하여 한 가지를 말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쉼터로 와서 삶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찾아’라고 전하고 싶다면 쉼터에 사는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프란체스, 쉼터에 사는 소년

거리 안팎의 선교

imb

라티 문 크리스마스 헌금

[imb.org/lmco](http://imb.org/lmco)



2013년 크리스마스 당일, 장소를 구하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 되었습니다. 나이바샤에 있는 한 고아원이 1999년 개원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크리스틴의 어머니께서 그 고아원의 이사회에서 섬기던 한 남자를 일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크리스틴이 센터를 위한 장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와 다른 이사들이 2014년 1월 유니스와 크리스틴을 나이바샤 어린이 보호소 공동 책임자로 임명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한 소년이 구조를 원하면, 보호소의 한 사회 사업가는 거리에서 그 소년을 구조할 시간을 계획하여 그 소년을 보호소로 데리고 올 것입니다. 보호소에서 그 소년은 일단 기술을 배우고, 상담을 받으며, 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궁극적으로 사랑과 안정된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리스틴이 말합니다. “제게 이 아이들이 있기 전에, 제게는 거리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보호소의 스테프들에게도 사실입니다; 그 소년들을 돌보는 일은 보호소의 담장을 넘어섭니다. 소년들이 가정들과 재결합되면

사회 사업가들이 계속해서 그 소년들과 가족들을 방문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소년들과 가족들을 모두 상담합니다.

보호소는 고아원이 아니라, 개개의 어린 아이가 개인적인 관심과 격려를 받는 곳이고, 그들의 가족과 재결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 같이 이러한 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길거리에서 “많이 부족해졌다” 또는 “더러워졌다”고 생각한다고 크리스틴이 말합니다. 그들이 상담을 받고 보호소 스테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과 가족과 재결합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매일 점점 커져갑니다.

보호소에서 살고 있는 소년 프란세스가 말합니다. “만일 제가 거리에 있는 친구에게 보호소에 관해서 한 가지를 말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그에게 ‘보호소에 와서 너의 삶을 변화 시켜 너의 가족을 찾길 바래.’”

프란세스와 그와 같은 다른 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도록 기도해 주세요.  
소년들이 가족과 화해할 때 가족들도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상처를 입은 소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심터 직원들에게 축복이 있길 기도해 주세요.